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12월도 미 일자리 증가... 실업률 3.7% 유지
- Bloomberg: 일자리 보고서에서 남성, 10대, 헬스케어 종사자 추세는
- FinaceYahoo: ISM 설문, '12월 미 서비스 둔화... 고용 둔화'

[미국 금융]

- Bloomberg: 주식 약세에서 약간 회복... 소프트랜딩 기대감
- Bloomberg: 견조한 일자리 보고서로 금값 떨어졌다

[물류]

- WSJ: 창고 공실율,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게 커져

[오일]

- WSJ: 미 원유 재고분 작년말에 5백50만 배럴 감소

[중국 경제]

- The Economist: 올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마주한 어려움들
- Bloomberg: 중국 정부, "2024년까지 기업 대출과 통화 공급 확대한다"

[AI / 무인자동차]

- WSJ: 지난 샘 알트만 해고 문제, OpenAI의 업계 지배력 흔들다
- Bloomberg: 무인 트럭, 이르면 2024년에 텍사스에서 운행 예정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현대와 기아차 대상 도난 사고 10배 증가 ... 2020년 이래로
- WSJ: Carrefour, 일부 펍시 제품 판매 중단 예정 ... 지나친 가격 인상 때문
- CNBC: 포드, 2023년 판매량 7.1% 증가해 2백만 대 판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Job Gains Picked Up in December, Capping Year of Healthy Hiring 12월도 미 일자리 증가... 실업률 3.7% 유지

- 미 기업들이 12월에도 견조한 속도로 고용을 늘렸다.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계속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방 노동부의 5일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일자리는 21만6천개 증가해 11월의 17만3천개보다 많았다.
- 2023년 전체적으로는 2백70만개 일자리를 늘려는데 물론 이는 2022년보다 낮지만 팬데믹 이전 연도들 보다 양호했다.
- 특히 헬스케어와 정부 일자리 가 늘었고 운송과 창고직은 줄었다.

- 임금은 12월에 작년 동월에 비해 4.1% 증가했다. 작년 초에 임금 인상 같은 상황은 계속 줄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Behind the US Jobs Boost: Men, Teenagers and Health-Care Work

일자리 보고서에서 남성, 10대, 헬스케어 종사자 추세는

- 남성 근로자들의 전체 고용 점유율은 11월 65.1%에서 12월에는 65.7%로 늘었다.
- 10대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줄었는데 16세에서 19세까지의 실업률의 경우 동기간 13.2%에서 11.4%로 감소했고 20세에서 24세까지도 감소했다.
- 산업별로는 헬스케어, 레저, 환대사업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으나 소매업은 감소세였다.

Bloomberg 기사

FinaceYahoo: US service sector slows in December as employment plummets - ISM survey

ISM 설문, '12월 미 서비스 둔화... 고용 둔화'

- 미 공급관리자협회(ISM)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비제조업 분야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11월의 52.7에서 50.6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50 이상은 서비스 활동 확장을 말한다. 서비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당초 코비드 봉쇄 후에 미국인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었다.
- 그러나 소비 지출이 상품으로 바뀌면서 서비스 모멘텀을 상대적으로 줄여 들었다. 작년 3분기의 경우 상품 지출이 서비스 지출을 크게 앞섰다.

FinaceYahoo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 Bears Retreat as Soft Landing Gains Credence: Markets Wrap

주식 약세에서 약간 회복... 소프트랜딩 기대감

- 투자자들은 오늘 발표된 경제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소프트랜딩을 이끌어 내리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연초 불안한 출발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

다.

- 오늘 금요일 오전 S&P 500은 0.5%, 나스닥 100도 비슷하게 상승해서 연초 5일간 기술주 중심의 벤치마크 지수가 하락한 이후 반등했다.
-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ISM이 12월 서비스 부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분야 활동이 확장세(50이상)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 이후 상승세다.
-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경우 3.97%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 Falls as US Jobs Data Curbs Bets on Early 건조한 일자리 보고서로 금값 떨어졌다

- 오늘 금요일 금값이 떨어졌다.
- 오늘 연방 노동부가 건조한 일자리 성장 보고서를 발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
- 금은 온스당 오늘 금요일 오전 \$2,053를 기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Warehouse Availability Surges to Highest Level Since the Pandemic

창고 공실률,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게 커져

-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 비어 있는 창고가 늘어나고 있다.
- 작년 4분기 미 전역의 창고 공실률은 5.2%로 지난 분기의 4.6%보다 상승했다. 작년의 경우는 3.1%였다. 작년보다 공실률이 계속 커지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사 Cushman & Wakefield의 발표다.
- 이처럼 공실률이 5%를 상회한 것은 팬데믹 때에 전자 상거래로 인한 매출 증가로 창고 건설과 임대료가 크게 늘어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WSJ 기사

[오일]

WSJ: U.S. Crude Oil Stocks Fell 5.5 Million Barrels in Week Ended Dec. 29

미 원유 재고분 작년말에 5백50만 배럴 감소

- 연말인 지난주에 미 원유 재고분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가솔린과 증류유 재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연방 에너지정보국은 어제 목요일 밝혔다.
- 구체적으로 12월 29일 끝나는 주에 원유 비축분은 5백50만 배럴 감소한 4억3천1백10만 배럴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 5년 평균 보다 2% 감소한 수준이다.

WSJ 기사

[중국 경제]

The Economist: Xi Jinping and China face another tough year 올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마주한 어려움들

- 중국의 경제가 성장 동력을 얻는데 실패했고,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침체에 빠져있다. 중국의 외국 투자자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상황은 올해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 경제에 있어서, 올해 중국의 경제는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다. 팬데믹 통제가 끝난 이후 짧았던 경제 성장과 소비자 수요가 금세 사라졌으며, GDP 성장은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가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 중국 정부의 경제 전략에 관한 몇 가지 단서는 3월에 열리는 연례 전국 인민대표회(NPC)에서 드러날 것이다. 리창 총리가 2024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5%로 발표한다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 한편, 시 주석은 중국의 문제가 서방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완화되길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서방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의 두 전쟁과 다가오고 있는 미국 대선 등이다.
- 그러나, 중국에 대한 서방의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중국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와 무역 제한을 통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저지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 각국 정부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로부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등 중국과 서방간의 경제적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위원회(EC)는 중국 전기차 기업이 무역 법규를 위반한 보조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 중국 내부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민족주의는 공산당에 대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방어물로 역할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 통지에 대한 내부적 불만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st 기사

Bloomberg: China Pledges Rapid, Sustainable Credit Growth Through 2024

중국 정부, “2024년까지 기업 대출과 통화 공급 확대한다”

- 중국 인민은행이 기업 대출과 통화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신용대출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의 총대출량은 작년 11월에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2022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엔 한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 인민은행은 최근 몇 주 동안 신용 구조에 더 집중하고, 제조업과 친환경 업계 등에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신호를 보냈다.

Bloomberg 기사

[AI / 무인 자동차]

WSJ: OpenAI Turmoil Pushes Customers to Diversify

지난 샘 알트만 해고 문제, OpenAI의 업계 지배력 흔들다

- 작년 11월에 있었던 OpenAI의 경영 문제가 이 기업 사업에 긴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기업의 일부 고객사들은 한 회사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라 말한다.
- 고객사들은 OpenAI와 거래를 완전히 중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구글을 비롯한 대기업부터 엔트로픽 같은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경쟁자들이 이 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작업 일부를 경쟁업체로 이전하는 것은 Open AI의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
- OpenAI의 경쟁사들은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1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컨벤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를 슬쩍 공격하기도 했다.

WSJ 기사

Bloomberg: Driverless Truck Companies Plan to Ditch Human Copilots in 2024

무인 트럭, 이르면 2024년에 텍사스에서 운행 예정

- Aurora Innovation, Kodiak Robotics 그리고 Gatik AI는 수년간의 테스트 끝에, 소프트웨어와 카메라, 레이더, 물체에 반사되는 빛의 파동을 보내는 라이다(lidar)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자동 운전 트럭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 이 기업들은 무인 트럭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무인 트럭 기술이 고속도로의 안전을 개선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Gatik AI는 이미 아칸소주와 캐나다에서 무인 트럭이 운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델러스 지역에서 무인 트럭을 대규모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텍사스는 2017년 처음으로 무인 트럭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Hyundai and Kia thefts soar more than 1,000% since 2020 현대와 기아차 대상 도난 사고 10배 증가 ... 2020년 이래로

- 현대와 기아차를 대상으로한 도난 사고가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 보험 통계를 조사하는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HLDI)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에 도난율이 1000% 증가한 것이다.
- HLDI에 따르면, 도난당한 차량 중 상당수는 전자식 이모빌라이저 (immobilizer) 같은 기본적인 자동차 도난 방지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자식 이모빌라이저는 차량에 있는 컴퓨터 칩과 키에 있는 다른 칩이 통신을 통해 탑승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 뉴욕, 워싱턴, 델라웨어 같은 일부 주에서 작년 상반기에 현대 및 기아차를 대상으로 한 도난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었다.

CNN Business 기사

WSJ: Supermarket Giant Drops Pepsi and Lay's Over Price Increases Carrefour, 일부 펩시 제품 판매 중단 예정 ... 지나친 가격 인상 때문

-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 기업인 Carrefour가 지나친 가격 상승에 항의하고자 일부 펩시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이라 말했다.
- 30개국 이상에서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이 기업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에서 펩시, 도리토스 및 기타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 밝힌 것이다.
- 작년 10월에 펩시코의 재무 책임자 Hugh Johnston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에는 제품 가격 인상이 둔화할 것이며, 전체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WSJ 기사

CNBC: Ford reports 7.1% increase in U.S. new vehicle sales as industry marks best year since 2019

포드, 2023년 판매량 7.1% 증가해 2백만 대 판매

- 포드가 2023년 자동차 판매량이 거의 2백 만대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22년 대비 7.1% 상승한 것이다.
- 그러나 이런 매출 증가세는 동종업계 전반 성장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포드의 F 시리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지난해 미국 해고 98% 치솟아...비용 절감 분위기 탕"

CG&C 최신 보고서...감축 규모 2020년 이후 최대
WSJ "경기침체 가능성 완화에 해고 꺼린 면도"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가면서 해고가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재취업 중개업체 '챌린저, 그레이 & 크리스마스'(CG&C)는 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업들은 약 72만2천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했다며, 이는 전년보다 98%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고 야후파이낸스가 5일 보도했다.

이런 감축 규모는 2020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비롯해 아마존과 같은 유명 기술 기업들은 여러 차례 해고를 단행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